

투자포커스

[기술적 분석] 상반기 주도주내 낙폭과대 15선

Technical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한 달 먼저 찾아온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년 전, 2014년 11월 26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은 삼성전자로 쏠렸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열흘간 삼성전자는 9.65% 상승한 반면 KOSPI와 KOSDAQ은 각각 1.78%, 0.9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타일별 상승률은 대형주 -1.0%, 중형주 -2.4%, 소형주 -0.6%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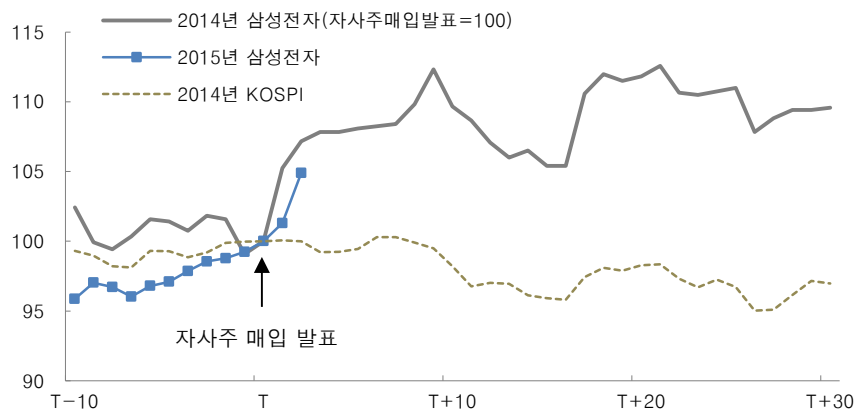
시장이 삼성전자로 집중된데에는 기관 수급 요인이 강했다. 자사주 매입 초기 열흘 동안 국내 기관은 삼성전자를 3100억원 순매수한 반면 KOSPI와 코스닥에서는 각각 5000억원, 129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수급 풀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T+10일을 기점으로 수급 풀림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도 둔화되었다.

2014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영향은 초기 효과가 강했다. 반대로 기관 수급 악화로 인해 하락했던 종목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초기(T+10)가 좋은 저점 매수 시점이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1)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 중기 낙폭과대를 수준까지 하락한 종목들'이다.

CJ, 한화, 삼립식품, 동서, 롯데푸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 2014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KOSPI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쏠림 11월 중순까지. 이후 중소형주와 코스닥 주목

올해 역시 자사주 매입 초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기 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종목 플레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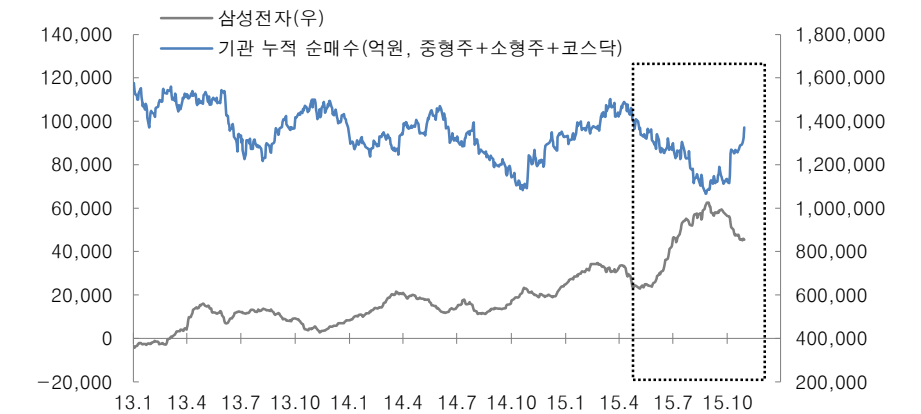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9월 이후 진행된 국내 기관의 중소형주와 코스닥 회피 심리의 정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기관의 중소형주와 코스닥 수급은 삼성전자 주가와 연동되고 있다.

(그림2)는 삼성전자 주가와 중소형주와 코스닥 기관 수급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기에는 기관의 중소형주와 코스닥 수급이 좋아지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기에는 기관 수급이 나빠지는 패턴이 뚜렷하다.

결국,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 기대감이 낮아져야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2. 삼성전자와 국내 기관 중소형주&코스닥 수급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의 기술적 상황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반전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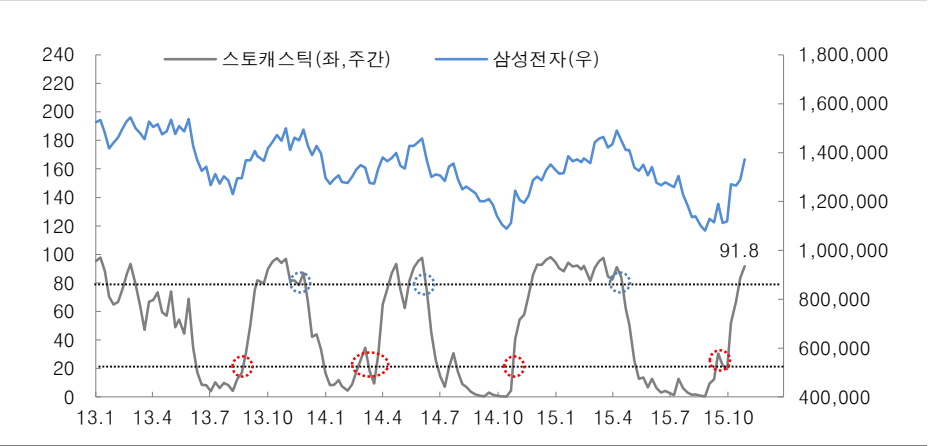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그림 3)은 주간 스토캐스틱 지표로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6개월가량) 삼성전자의 기술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참고로 기술적 분석에서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하며 전략적으로 과열(80)을 이탈하는 시점이 이상적인 비중 축소 시점이 된다. 이와 반대로 20 이하이면 침체로 판단하며 침체(20)를 탈출하는 시점이 비중 확대 시점이 된다.

삼성전자는 10월말 주간 스토캐스틱이 과열에 진입했다. 중기 과열 진입은 (1)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2) 중기적으로는 기술적 고점 근접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과거 삼성전자는 중기 과열 진입 이후 1~2개월 추가 상승하는 기술적 패턴을 나타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11월에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적 측면에서 보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KOSPI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을 제외하면 과열 진입 이후 2~3주내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림 3. 삼성전자 기술적 수준 : 과열 진입 = 단기 추가 상승 시도 + 중기 기술적 고점 근접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최대 8~10%p 초과 상승하는 수준 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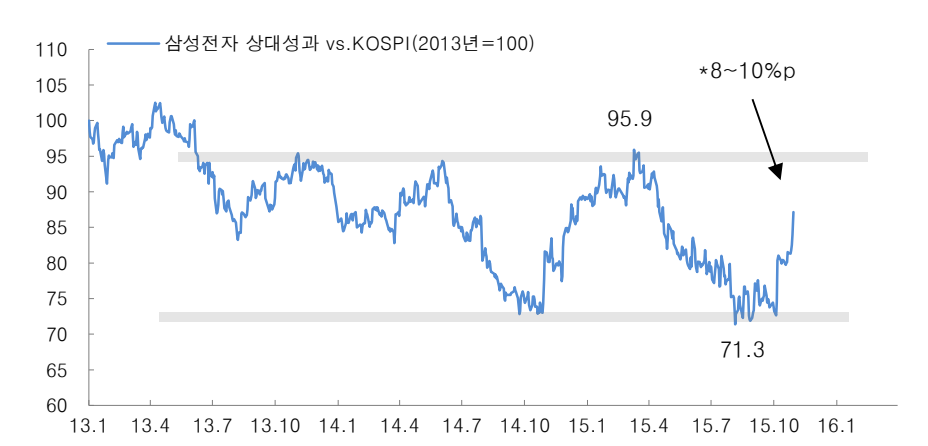
(그림 4)는 KOSPI대비 삼성전자 상대강도(삼성전자/KOSPI,2013년=100)를 나타내는 데 2014년 이후 삼성전자 상대강도는 72와 95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상대강도가 72수준까지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KOSPI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95수준까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KOSPI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지난 8월부터 삼성전자 상대강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KOSPI보다 삼성전자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상대강도 저항선까지 8~10%가량 괴리가 있어 KOSPI대비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는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부분은 상대강도가 9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종목 플레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올해에 적용한다면 삼성전자가 KOSPI보다 5%p정도 추가 상승하는 시점부터 종목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삼성전자 KOSPI보다 최대 8~10%p 더 강해질 수도 있어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로의 주가 쏠림은 11월 중순부터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는 2014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시기 동안의 (1) KOSPI대비 삼성전자 상대 지수와 (2) 중형주와 코스닥 주가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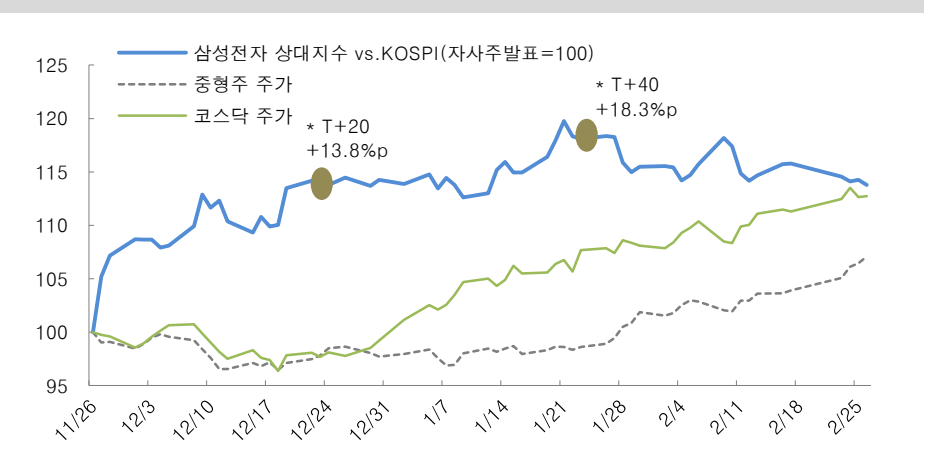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11월 26일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2개월간(T+40) KOSPI보다 강했다. 특히 초기 효과가 컸다(20일간 13.8%p 초과 상승).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사주 매입 시기별 중소형주와 코스닥 흐름이다.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자사주 매입 초기에 약세를 나타내다 T+15일 전후부터 강세로 전환했다. 자사주 매입 초기에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가 T+15일 전후부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사례를 적용할 경우 11월 중순부터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만하다. 물론 해당 시점까지는 KOSPI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2014년 자사주 매입 기간 : 삼성전자와 스타일별 주가 추이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11월에는 낙폭이 컸던 상반기 주도주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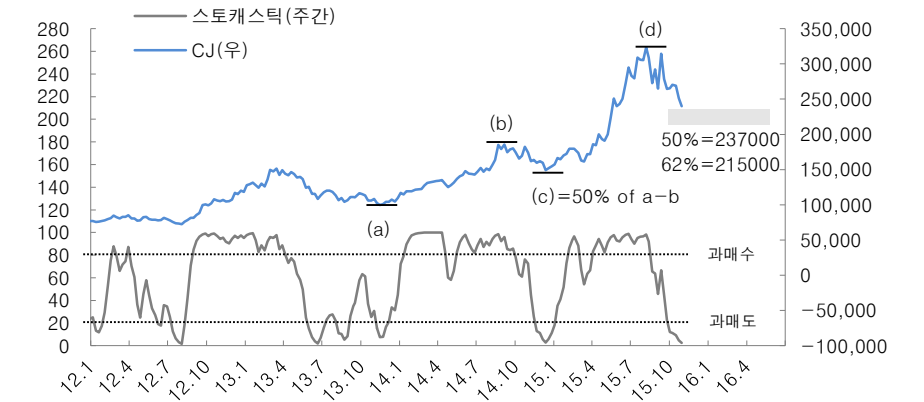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과 주가 풀림은 삼성전자 강세로 인해 9~10월 약세를 기록했던 종목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기간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초기 효과가 사라질 경우 반대편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관심 종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중기 상승 추세 진행 : 60주 이동평균선 상승
- 2) 10월말 중기 과매도 상태 : 주간 스톡캐스트(14,3)값 20이하
- 3) 중기 낙폭 과대 : 10~11월 주가 10% 이상 하락
- 4) 기관 수급 악화 : 10~11월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 5) 최근 4개 분기 영업이익(2분기 기준) 안정성

그림 6. 기술적으로 본 중기 낙폭과대 종목 : CJ



자료: W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페이지 (그림 7)에 CJ, 한화, 삼립식품, 동서 등 중기 낙폭과대 15종목을 선정했다.

이들은 중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단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중기 투자자에게는 이들 종목이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3개월~6개월 투자자라면 11월 중 기술적 중기 낙폭과대 15선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림 7. 기술적 중기 낙폭과대 15선

종목명	9월~10월		60주 평균 과리율(%)	주간 스토크스틱		영업이익 추이(억원)			
	등락률(%)	기관 매수강도(%)		현재	전주	14년 3Q	14년 4Q	15년 1Q	15년 2Q
CJ	-16.52	-0.23	11.62	2.34	4.69	2,719.5	2,678.5	3,358.4	3,071.1
동서	-24.67	-1.09	11.46	2.55	5.11	114.8	126.1	147.1	118.4
한화	-10.91	-2.16	3.17	1.94	3.88	3,031.7	1,665.9	2,653.8	4,143.1
삼립식품	-22.95	-1.11	17.35	8.94	14.51	103.3	188.6	113.8	151.8
하나투어	-20.00	-3.89	13.62	3.39	6.77	135.6	112.3	168.5	117.2
롯데푸드	-18.42	-0.35	12.86	12.38	24.75	263.5	8.0	129.3	246.7
한국콜마홀딩스	-10.42	-0.82	15.81	15.85	9.71	62.8	79.4	106.2	129.5
OCI머티리얼즈	-15.31	-0.76	6.78	9.33	3.04	65.7	139.5	217.1	224.4
현대리바트	-12.82	-0.99	8.95	13.65	22.00	71.4	20.9	98.6	115.5
한솔케미칼	-14.97	-0.97	10.62	0.35	0.70	64.7	97.1	118.7	137.6
대웅	-14.27	-0.90	10.09	4.18	3.54	205.3	129.5	224.1	253.4
코스맥스비티아이	-20.25	-0.82	13.06	9.14	6.04	34.8	15.7	22.0	42.9
신세계푸드	-26.34	-2.96	13.05	5.23	10.46	38.5	13.4	46.4	51.4
코나아이	-13.87	-0.83	4.08	10.08	20.16	97.3	82.4	144.0	124.6
바이넥스	-18.75	-3.34	11.88	1.86	3.72	3.2	14.6	5.4	8.5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1 : 기관 매수 강도 = 9~10월 기관 순매수/기간 평균 시가총액*100
주2 : 60주 평균 과리율 = 주가/60주 평균값*100-100
주3 : 주간 스토크스틱 = 주간 종가를 이용한 스토크스틱 값으로 200이하의 과매도 영역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